

아이디어가 제품이 된다 '메이커 스페이스'

중기부, 광주·전남 6곳 등 선정
3D프린터 등 장비 구비
제작·교육·체험공간 제공

자신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동안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고 상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창업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창작공간(메이커 스페이스) 65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는 누구나 쉽게 메이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3D프린터를 비롯한 각종 장비 등을 구비한 실험적 제작·교육·체험공간을 제공한다. 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올해 처음 전문형 5곳과 일반형 60곳이 선정됐다.

전문형 공간은 30억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돼 시제품 제작 등 전문 창작활동과 기존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사업화 지원, 지역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한 거점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일반형 공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활동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내 메이커 스페이스 기관은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문형으로 선정된 '전남대학교'를 비롯, 일반형 '오픈랩(주)', '플리마켓 협동조합', '광주북구문화의집', '청소년자람터 오늘', '전남정보문화



독일 베를린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인 '팹랩 베를린'(Fab Lab Berlin)에서 청년들이 비차대 있는 각종 장비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고 있는 모습. 창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독일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이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산업진흥원' 등 총 6곳이다.

전문형에 선정된 전남대학교의 경우 고도화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일반형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예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제조창업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 고성능 기본장비로 구성된 창작공간과 전문메이커, 창업가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전문 협력공간, 전문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마이크로팩토리), 전시·판매 공간 운영 등이 가능한 전망이다.

일반형에 선정된 기관에는 일반인이 다양한 메이커 활동이 가능하도록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범용 디지털 제작용 장비와 목공·금속가공 등 다양한 장비가 비치된다.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교육을 거치면 누구나 조작성이 있는 디지털 제작

장비로, 교육과 체험, SW 메이커활동 등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장비·공간 구축과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위해 일반형 기관에는 연간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이들 기관은 오는 9월까지 공간과 장비 구축 등을 마무리한 뒤 10월부터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 개 공간을 마련해 야간과 주말 개방 등 탄력 운영과 자체 수익모델 발굴로 중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메이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려면 메이커올(www.makeall.com) 플랫폼에서 지역, 구비 장비, 제공 서비스 등 원하는 조건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3D프린터 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말한다. 개인의 아이디어나 생각하고 있는 상품을 직접 제조·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사업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의 과정을 넘어 일반 개인도 최종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개인 제조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메이커 스페이스
- 전문형: 전남대
- 일반형: 오픈랩(주), 플리마켓 협동조합, 광주북구 문화의집, 청소년자람터 오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벤처 활성화...광주·대구 기업들 손 잡았다

26일 각 지역 벤처기업협회 상생협약·달빛동맹 교류회

광주와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손을 잡고 벤처기업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회장 김명술)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이상우)는 오는 26일 '상생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 판로개척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기업 달빛동맹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벤처기업 달빛동맹 교류회'는 두 지역이 벤처기업 육성에 나서는 첫 사례로 꼽힌다. 앞으로 광주·전남 및 대구벤처기업협회 달빛동맹 상생협약을 통한 벤처기업 발전 모색과

벤처기업간의 기술교류, 판로모색, 사업 아이디어 도출·투자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교류회를 통해 혁신선도벤처기업으로 대구지역 ㈜케이엠씨(대표 민병덕)를 선정해 두 협회가 육성지원에 나서면서 스타기업 탄생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대구의 벤처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광주와 대구지역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에 나서 국내 대표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협회측의 계획이다.

케이엠씨는 고품질·초정밀 차세대 고속가공 머시닝센터 전문 제조업체로, 2010년 설

립해 자동화 설비 기계·초정밀 기계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자체 개발한 '삼각 구조 초정밀고속가공기'가 있으며, 속도가 빠르면 정밀도가 떨어지고 정밀도가 높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제품이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8 IR52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 급성장 기대되고 있다.

김명술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지역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제품거래지원 中企 모집

27일까지 중진공 광주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용일)는 오는 27일까지 2018년 중기제품거래촉진(HIT500)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1차 서류 및 온라인평가와 2차 실물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상세페이지 제작, 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에 개설되는 온라인판매권 참여기회 제공,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IT500홈페이지(www.hit50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문의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62.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